

## 心理學科의 특성과 발전 방향

車 載 浩  
(서울大 心理學科)

### 1. 心理學科의 設立 背景

심리학과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46년 서울대가 새로 발족하면서부터이다. 서울대의 심리학과는 다른 국내 대학과는 달리 일제 때의 경성제국대학 속에 있던 법문학부 철학과의 일부로 존재했던 심리학 연구실을 계승하였다. 원래 京城帝大에는 심리학과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철학과 안에 심리학 전공만이 있었으나, 실험 시설만은 큰 것을 가지고 있어서 1920년대 당시에는 전 일본을 통털어 가장 좋은 시설이었다고 한다. 어떻든 이 시설은 서울大 文理科大學 본관의 서쪽 棟 전체를 차지하였고 10여개의 실험실과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대가 설립될 무렵에는 일본인 교수는 모두 일본으로 물러 갔고 일제 때, 즉 '30년대와 '40년대에 경성제대를 졸업한 몇 사람이 서울大 심리학과에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들 중 2명만이 '助手'의 경력이 있었고 모두 대학원 교육은 받지 못했었다. 결국 처음 생긴 심리학과는 일본의 심리학을 내용 면에서 계승할 수 없었고 다만 물리적 시설만을 인계 받은 것이다.

서울大 심리학과(문리과대학 문학부 소속)가 생긴 지 1년 후인 1947년에는 中央大에도 심리학과가 생겼다. 6·25 동란까지는 이 두 학과만이 존재하다가 6·25 동란 중 부산 피난중에 梨

花女大 심리학과가 생기고 서울 수복 후 1953년에 서울大 사범대 내에 교육심리학과가 생겼으며 1954년에는 成均館大에 심리학과가 생겼고 1955년에는 高麗大에 교육심리학과가 생겼다. 1961년에 문교부의 학교 정비 기준령에 의해 梨大의 심리학과가 교육심리학과로 변경되었고 서울大 사범대의 교육심리학과가 교육학과에 병합되었으며, 1963년에는 대신 高麗大의 교육심리학과가 심리학과로 바뀌었다. 成均館大의 심리학과는 1969년에 일시 교육학과에 병합되었다가 1971년에 '산업심리학과'로 다시 부활되었다. 같은 해 서울女大에 교육심리학과가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1971년까지는 서울대,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울여대에만 심리학과(모두 6개)가 있었고 '7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사실, 해방 후 심리학과의 1차적 설립 움직임은 1950년대에 끝난 셈이었다(車載浩, 1976).

1970년대 중반까지 해방 후 30년간 심리학과는 6개를 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대는 거의 全無한 때이었으므로 이들 심리학과는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7년 釜山大에 심리학과가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지방대학에 심리학과가 생겨 1981년 무렵까지 4년 사이에 12개 대학에서 심리학과가 신설되고, 1981년에 1개, 1983년에 다시

3개, 1985년에 1개, 1988년에 1개, 그리고 1989년에 1개가 늘어 현재는 심리학과의 26개(교육심리학과 및 산업심리학과 포함)로 늘어났다. 이들 26개의 심리학과 중 19개가 1977년 이후 10년 사이에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과의 증설은 대학생 모집 증원에 따른 문교부와 대학들의 행정상 고려에서 나온 조치이고 인력 수급이나 심리학계의 요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심리학계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다(車載浩, 1987).

심리학과의 이와 같은 갑작스런 增設은 심리학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人力 需給의 부족이었다. 갑자기 불어난 학과의 증설로 자격을 제대로 갖춘 교수 인원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 1970년대말에 일어난 지방대학에서의 심리학과 개설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과의 교수 요원은 거의 전적으로 서울대 출신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배출하는 대학원 학위의 수는 갑작스러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의 다른 심리학과에서 대학원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대학 밖의 직장을 가졌던 인력이 대학의 신설 학과에 흡수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역사가 오랜 고려대,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 출신의 상당 수가 심리학과 교수 요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심리학과 교수의 출신 학과 구성이 서울대 일색에서 3~4개교로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심리학과 증설과 교수 인원의 부족 현상은 아직 교육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교수 요원으로 충원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즉, 교수 요원의 일반적 자질 수준의 저하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 수준 저하는 매마침 일어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젊은 학자들의 수의 증가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었다(Cha, 1987).

급격한 학과 증설이 몰고 온 세번째의 결과는 심리학과 施設의 貧弱性이다. 이 상황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히 관계된 것이다. 또 심리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비록 심리학과의 증설이 더 서서히 진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과 증설이 보다 단계적으로 일어났다면 시설 여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은 새로 생긴 심리학과들의 零細性이다. 교수 수나 시설 면에서 제대로 심리학 교육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빈약한 상태에서 심리학과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심리학과는 해방 후부터 사회 일반이나 교육계의 인식 부족으로 '영세학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학과 증설로 더욱 영세한 학과들이 양산되게 된 것이다.

급작스러운 심리학과 증설로 초래된 네번째 결과는 전국적인 심리학 取攻者의 急増이다. 1976년에는 전국의 심리학 전공자 수가 582명이었으나, 7년 뒤인 1983년에는 약 5만인 3,096명으로 늘어났다. 대학원생 수도 그 기간에 53명에서 199명으로 4배가 증가했다(Cha, 1987). 그후 1989년에는 전공자 수가 4,060여 명으로 늘어났다(車, 1987). 이와 같은 증가는 대부분 지방대학 심리학과의 신설로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심리학과 전공자의 급증은 아직도 미개척 상태에 있는 심리학 전공자(학부 졸업자)의 사회 진출 전망을 어렵게 만들었다. 원래 심리학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만 전문가로서의 취업이 가능한 고학력 분야인데 대부분 대학원 과정이 없는 지방대학의 학과에서 졸업하는 심리학 전공자들의 진로는 전혀 막연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소위 일류대학의 심리학과 학생과 나머지 대학 심리학과의 학생 간에는 현격한 자질의 격차가 있게 마련이고 지방대학 심리학과 출신들이 원래부터 대학원 진학을 희망도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면 이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서있지 않은 것이다.

## 2. 心理學科의 特徵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에서 심리학과의 發展 史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심리학과의 지니는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학과의 특징은 한국적 상황을 초월하여 심리학이라

는 학문이 발전해 온 배경, 특히 심리학은 주로 미국에서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으므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학부 수준에서 심리학과를 볼 때 심리학과는 다른 학과들, 예컨대 사회학과, 인류학과, 정치학과 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래도 다른 점을 든다면 심리학은 실험 실습을 요하는 과목들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과는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 분야 학과와는 달리 많은 실험실과 실험 도구 및 시설을 요한다. 더우기 심리학은 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 자연과학적인 분야에 걸쳐 分野의 細分化가 다른 학문의 2~3배로 많이 되어 있고, 각 분야에서 실험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실험 공간과 시설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심리학과는 대개 다른 학과와는 달리 독립 건물이나 독립 건물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UCLA의 경우 지상 11층 타워와 5층 건물(지하 2층, 지상 3층) 2동 등 모두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 크기가 그곳의 공과대학과 거의 맞먹는다(車, 1985).<sup>1)</sup> 한국의 심리학과는 국가 재정의 제약과 일반인의 인식 부족으로 필요한 만큼의 실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다른 학과에 비해 이런 시설을 조금은 갖추고 있는 편이다. 자연과학대학에서의 실험 시설은 하등 특이할 것이 없으나, 대개의 경우처럼 심리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을 때는 심리학과의 이러한 시설 필요상의 특징이 심리학과를 특이한 존재로 만든다(지리학과도 약간 위치가 비슷한 학문이지만). 그래서 행정적으로 심리학과의 시설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리학과의 또 다른 특징은 심리학과 교육이 大學院 진학을 前提로 한 準備的 基礎教育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심리학 전공자가 전문인으로 직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을 필요로 한다. 심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는 대학의 교수직이나 연구직은 박사학위를 요하고, 또 병원의 임상 또는 상담 심리학자의 자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요구한다. 학사

학위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분야는 기업의 광고, 인사, 교육 등의 부문에 국한된다. 따라서 학과의 사정(학생의 자질 등)이 허락하는 한 심리학과는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둔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된다.

심리학과의 세번째 특징은 교육에서 科學的 接近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심리학과가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으므로 인한 특징이 되는 것인데 다른 인접 분야에 비해 연구법, 실험설계법, 측정법(심리 측정, 태도 측정), 검사법, 심리 검사, 통계적 분석법, 사회조사법 등 방법에 관한 교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가 수량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과학을 포방하지만, 심리학만큼 자연과학과 비슷한 접근을 하는 학문은 없으므로 심리학과의 교육은 사회 진출을 더 강조하고 과학적인 지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다른 이웃 학과의 것에 비해 특이하다.

심리학과의 네번째 특징은 앞에서 말한 과학 지향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심리학의 正體(identity)의 曖昧性이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정체성이 애매하다기보다는 현재의 학문 분류법이 심리학에는 극히 어색해서 생기는 애매성이다. 심리학의 분야는 인문학으로부터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자연과학에까지 널리 걸쳐 있다. 상담심리학이나 성격심리학은 인문계의 학문에 접근해 있는 반면, 임상심리학은 의학, 사회심리학은 사회과학 그리고 동물심리학과 생리심리학은 자연과학 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그리고 인지심리학은 그 어느 쪽도 아니고 조직심리학은 경영학에 가깝다. 그런데 발달심리학은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루는 대상의 규모도 다양하다. 생리심리학처럼 신경 세포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회심리학처럼 인간이나 동물 집단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심리학이 언제나 개체를 분석 단위로 한다고 하나, 실제로 연구하는 수준은 세포에게 동물 개체나 인간 집단에 이르기까지 널리 걸쳐 있다. 심리학 내부가 이와 같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과

1) 1976년 무렵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는 450여개의 연구실, 실험실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車, 1976).

는 어느 대학(그것이 인문대학이든 사회과학대학이든 자연과학대학이든)에 있는 소속 관계가 불편하다.

심리학과와 다섯번째 특징은 앞에서 말한 분야의 다양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學問分野가 이웃 학문들보다는 훨씬 細分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개 심리학은 학부 수준에서만 이야기해도 학습심리, 지각심리, 언어심리, 사회심리, 발달심리, 성격심리, 동물심리, 생리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산업심리학 등 11개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대학원에 가면 조직심리나 심리측정과 같은 전공 분야가 첨가될 수 있다. 이들 분야는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교수는 전문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심리학 분야의 광범위함과 이에 따른 전공의 세분화는 인문계나 사회계 대학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예인데 이러한 특유한 사정은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3. 心理學科의 發展方向

우리나라의 심리학과는 서울대의 심리학과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나, 몇 개의 학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될 형편이 아니었다. 특히 26개의 심리학과 중 6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7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되어 학과의 역사가 겨우 10년을 넘거나 어떤 것은 불과 수년의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또 갑작스러운 학과 설립 열풍이 심리학계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설 학과에 부임한 교수의 대부분이 대학 교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할 형편이 못되었다. 또 한국 심리학과와 역사가 현 시점으로 43년이 된다고는 하지만, 학문이나 학과 성장의 역사로 보면 아직도 일천한 역사이고 전반적으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어받을 전통을 갖지 못했다. 이제 심리학과의 운영 방안이나 발전 방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뜻깊은 것

이라 할 수 있다.

일천하나마 이제 한국 심리학과와 대부분이 10여년의 운영 경험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학계를 대표하는 연구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 아래 全國 心理學科의 학과장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sup>2)</sup> 질문지 속에는 심리학과의 실태를 다루는 질문과 심리학과의 교육 목표와 문제점 등을 다루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학과의 발전 방향을 언급하기에 앞서 심리학과의 실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심리학과의 절대 다수가 零細의 規模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립 당시 교수 수는 1명에서 3명이었는데 현재의 교수 수는 가장 많은 서울대의 11명을 제외하면 적은 곳은 2명이고 큰 곳은 6명 선이다. 대체로 40% 정도가 5~6명의 교수를 지니고 있고 나머지는 4명 이하의 교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심리학과의 약 52%가 地方大學이다. 셋째, 私立大의 심리학과는 국·공립대의 심리학과에 비해 교수 수에 있어 더 零細하다. 국·공립대의 경우 최소가 5명인데 사립대의 경우는 5명 이하가 대부분이다. 넷째, 심리학과의 교육 목표는 5개로 요약이 되는데 이들은 ① 심리학 기초 지식과 기술의 함양, ② 심리학의 지식을 지닌 사회인의 양성, ③ 사회에서의 심리학 응용 능력의 양성, ④ 개인적 성숙과 사회 적응력의 함양, ⑤ 심리학을 응용하는 분야에서의 취업 준비이다. 사범대학 소속의 교육심리학과에서는 ⑥ 교육학과 심리학의 이중 초점을 둔 교육 목표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6개 교육 목표별로 학과의 분포를 보면 ①이 가장 많고, ⑤가 두번째로 많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국립과 사립 간에 교육 목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울의 큰 대학의 심리학과(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는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음)는 기초 교육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대학은 ①이 아닌 다른 목표를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응답한 20개 학과 중 ⑤에 중점을

2) 이 조사는 1979년 가을에 실시되었다. 완전한 보고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문 학과 수가 8 개로 거의 반수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 목표의 중요성은 수도권과 지방 간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소위 '일류교'의 학과 이외에서는 취업을 위한 교육이 학과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학부 교육 운영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해 질문하였는데, 여기서도 지역 간이나 국·사립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초 및 실험 강조가 가장 많았고(20 개 중 8 개), 다음으로 현실 합치 내지 응용 강조가 많았다(6 개 학과). 현실 합치 내지 응용 강조는 취업을 염두에 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 본 취업 준비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서 얻은 또 하나의 사실은 특수 분야의 교육을 강조하거나 심리학 이외의 다른 분야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 분야의 교육을 강조하는 학과는 덕성여대, 성균관대, 성심여대, 효성여대, 이화여대 등이다. 성균관대는 산업심리학과인 만큼 산업, 경영, 조직, 광고 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거나와 주로 사범대학의 테두리에 들어 있는 들어 있지 않든 간에 여자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또는 교육심리학과는 심리학 내의 몇몇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분야로 흔히 택해지는 것은 상담과 발달이다.

학과가 제공하는 교과과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학과 간에 큰 격차가 있음이 드러나 심리학과 교육의 質的 向上과 아울러 標準化의 필요가 절실히 보여 주었다. 전공 필수 과목은 학과에 따라 2 개에서 12 개로 큰 차이가 있으며, 실험·실습을 요하는 과목 수도 0 에서 12 사이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앞에서 본 바대로 상당 수의 학과가 취업 준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과 보다 밀접한 과목이라면 산업, 조직·경

영, 광고·소비자, 심리진단, 심리집사, 심리측정, 교육심리 정도인데 이들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 0, 0, 2, 3, 0, 3 개 뿐이다. 이들 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좀더 많아서 각각 15, 10, 6, 15, 11, 4, 4 개 등이다.

학과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학생들의 영어 해독 능력의 제한으로 인한 교육의 한계이고, 둘째는 수업 부담의 과중과 한 교수가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는 데서 오는 수업 수준의 저하, 즉 교수 수의 부족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다. 특히 교원 수의 절대 부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강의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외부 강사를 채용해야 하며 과중한 시간적 부담으로 학생의 개별 지도나 실험·실습 교육을 희생시켜야 한다. 또 적은 인원으로 지정된 과목 수를 개설해야 하므로 능력에 부친 교수들은 흔히 유사 과목을 여러 개 개설하는 폐단도 일어난다.

이상과 같은 심리학과들이 안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을 볼 때 심리학과가 하루 속히 해야 할 일은 ①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 ② 교과과정의 정비 및 표준화, ③ 학과의 교육 목표 및 지역 환경의 검토를 통한 학과의 특성화, ④ 장기적으로 심리학과 독립 건물로의 이전 등이다. 심리학과 의 靑今の 많은 문제점은 심리학과가 '70 년대에 급작스럽게 양산된 데서 생긴 것인데 우선적으로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급작스러운 학과 증설의 결과로 교원의 질적 저하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자질 향상 문제에 앞서 교원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sup>3)</sup> 이와 함께 심리학과 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가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교부나 대학 당국의 이해와 관심이 없이는 조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교과과정의 내용이나 운영에서의 표준화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번째

3)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일류교라고 칭할 만한 대학 8 개에서 심리학과 전임 교수 수는 1976 년 현재 34 명에서 85 명에 이르렀다. 겸직 교수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진다(車, 1976). 1984 년 현재 UCLA 심리학과 의 전임 교수 수는 97 명이였다(車, 1985).

할 일인 학과를 特性化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 심리학과들은 학과 교수진의 규모와 구성, 학생의 자질과 구성,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청 등을 고려해서 학과의 일차적 교육 목표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보아 온 심리학과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적어도 세 가지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기초 교육에 역점을 두되 심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고루 교육시키는 학과(이러한 학과는 주로 학자나 연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둘째는 기초 교육을 강조하되 서너 개의 분야만에 초점을 맞추는 학과, 셋째는 심리학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한 직업인 양성을 위주로 하는 학과이다. 물론 한 학과가 이들 중 어느 하나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제시한 모델은 '1차적 목표'를 근거로 한 것이다. 현재 많은 학과들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 부족과 낮은 학생 자질, 그리고 취업 기회의 협소함이 여기에 가세해서 일어난 것이다. 많은 영세성을 띤 학과(한국의 심리학과는 국제 수준으로 말하면, 가장 큰 서울대의 심리학과까지 포함해서 영세적이다. 미국의 큰 심리학과들 중에는 100여 명의 교수를 지닌 것들이 있다)들이 지나치게 모든 심리학 분야를 다루려고 하는 데서 생겼다. 앞으로 정부나 대학의 심리학과 지원이 극적으로 증가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다루는 분야 수를 제한하여 같은 전공 분야의 교수를 중복·채용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수 부담도 줄이게 되면서 강의의 질 저하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화는 학생의 질과 학생의 흥미, 기존 교수들의 전공 내지 관심 분야 등을 근거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언급하는 것은 주로 두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번째 모델인 직업교육 위주의 학과에서도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은 학생의 자질과 지역 특성이 특별히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제시한 모델은 세 가지 뿐이다. 두번째 모델과 세번째 모델 안에는 각각 초점의 차이에 따라 사실상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학과의 유형은 3개가 아니라 5개 또는 6개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기본 형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모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심리학과는 실험실 등 특수 시설의 필요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독립 건물을 지녀야 한다. 경성제대 시절에도 법문학부 본관 건물의 일부를 전부 차지했었다. 미국에서는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심리학과가 독립 건물 또는 건물 블록을 점유하고 있다. 심리학과는 인문대든 사회대든 다른 학과와 함께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한 행정적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실험 공간을 얻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지나치게 현실 타협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실 여건에 맞추어 학과의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육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대로 좋은 점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의 心理學 教育이 외국 대학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뿌리를 박고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特性化함으로써 각 학과는 질적으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학과 간에 相互補完의 關係를 맺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과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심리학과의 발전 방향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심리학과장의 協議體 운영이 필수적이다. 지금도 한국 심리학 내에는 그러한 협의체가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서로 협의를 해야만 다른 학과에서 서로 배울 수 있고, 학과 운영이 정교화될 것이다. 미국의 UCLA 심리학과 내에는 무려 3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운영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생겨나게 될 것이다(車, 1985).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학과간 협의체가 학과장 수준에서만 아니라 과목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지원해서 심리학계를 대표하는 연구팀이 수탁한 전국 심리학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같은 것은 그것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도 교육 목표, 교과 과정, 운영 방식 등에서의 標準化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단순히 同調效果를 생각해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만일 학과장이나 전공별 또는 과목별 협의체가 운영되면 이런 표준화는 더욱 빨리 진전될 것이

고, 그 결과 심리학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교육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국가 재정이 보다 여유있게 되어 심리학과가 더 커질 때를 대비해서 꾸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과가 그저 커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성질상 현재의 심리학과와 구성은 특성화와 같은 고식적인 방법을 쓴다 해도 심리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연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다른 학문 분야보다 심리학에서 더욱 절박한데, 그 이유는 심리학과와 특징과 관련해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과는 이 절대적인 영세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규모가 커져야 하는 것이다. \*

〈參考文獻〉

- Cha, J.H.(1987), Psychology in Korea, In Geoffrey H. Blowers and Alison M. Turtle (eds.), *Psychology Moving East*(pp.163~182).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pp.177~186.
- 차재호(1976), 한국심리학의 역사, 현황 및 사회과학 협동연구의 방향, 사회과학논문집, 제1호, pp.61~100.
- 차재호(1985), UCLA 의 심리학과, 심리학의 연구문제, 2, pp.211~223.
- 차재호(1987), 심리학과, 1987년도 문교부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사회과학부문 대학교육안내서 개발연구” 결과보고서, pp.41~54.